십계명은 줄줄이 알사탕

(출20:12~21)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3. 살인하지 말라
14. 간음하지 말라
15. 도둑질하지 말라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계명은 줄줄이 알사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계명은 줄줄이 알사탕'
십계명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느껴질 때에 십계명을 지키기기도 쉬워지고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십계명은 짐이나 부담이나 구속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으로, 줄줄이 알사탕으로 느껴지고 지켜질 때 복음의 또 다른 형태가 됩니다. 십계명이 줄줄이 알사탕으로 느껴져야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따로따로 하나씩 분리되어서 열 가지의 계명으로 분류되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잘못 이해된 십계명은 어떤 방식으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십계명이 가지는 복음으로서의 특성은 전혀 맛 볼 수 없고, 십계명이 지켜짐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의 큰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느껴지면서 지켜질 때 얻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접근을 질문으로 시작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어제 살펴본 네 계명은 대신(對神)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오늘 읽은 여섯 계명은 대인(對人)관계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러한 분류 자체가 십계명을 지키고 복음으로 누리는 것의 큰 방해가 될뿐더러 잘못인데, 이 점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의 내용은 십계명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 인류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성문화된 법전이라고 여겨지는 고대의 함무라비법전을 보면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손을 대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부모공경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진행 중인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 때문에 쫓겨납니다. 즉, 애굽에도 애굽 사람들만의 통하는 것이었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관계없는 문명 속에서도 그러한 법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봐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 간에 모함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공식적인 법으로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로 나눈다면 대인관계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이 특별히 선민만을 위해 주어진 것으로는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아요. 이웃집의 불교를 믿는 박씨 아저씨도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정말 미워서 교통사고라도 나서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인간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지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족도 잃고 다 잃게 되므로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이러한 이유에서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무섭고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살인을 하지 않는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어떠한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나 유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카투사에 같이 있었던 한국계 미국 군인이 동두천에 있는 사창가의 아가씨들을 전혀 상대하지 않아서 사람이 참 순결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창가를 가지 않아야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일 뿐, 간음하지 않는 행위는 똑같지만 그 동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계명의 의미를 더 심화시키십니다.

마5: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하시는데 형제를 ‘바보’라고 욕하고 비방만 해도 살인과 똑같다는 것이고, 또한 마5: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시는 것은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등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 뿐, 그 범죄를 행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기 때문이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의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깨질 수 있고, 소신에 어긋나고, 신념에 어긋나고, 청백리를 가문의 전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가문의 전통이 깨지기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섯 계명이 말하는 대인관계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의지처이고, 우상숭배도 결국은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나의 주체성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꼭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소원의 한 방식으로 장만을 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북받쳐서 지내야 되는 게 안식일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형식적 의미에서의 성수주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내용적으로 잘 이루어 졌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들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시험방법을 제시하신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준수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공경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가지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 제정된 목적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탐내지 않는다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대인관계의 계명을 통해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반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의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

계의 상태를 알아보는 리트머스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대하여 가지셨던 마음가짐과 태도와 행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아버지와의 관계에 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기점으로 베드로의 사람에 대한 관계가 180도로 바뀌어 버린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며 무서움으로 대했으나 갑자기 그들이 때리고 죽일 위협을 하며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행4: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앞에 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인데,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도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계명이 깨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의 특이한 특성이 우리 눈앞에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줄줄이 알사탕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네 계명, 인간에 대한 것으로 여섯 계명으로 나뉘어서 분류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눈에 띌 때마다 십계명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라는 것입니다. 선민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개선되고 시정되려면 더욱 더 영적인 차원으로 매진해야 하는데, 영적인 차원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잘못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말을 할 때에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는 것으로 더욱 더 믿음에 정진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시정해야 행위가 시정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십계명은 오직 하나의 계명뿐으로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첫째 계명으로부터 줄줄이 알사탕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네 계명과 여섯 계명이 따로 떨어진 대신과 대인관계의 계명이 아니라 대신관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대인관계의 여섯 계명이 주어진 것으로 깊이 알고 보면 첫째 계명 하나를 지키면 나머지 아홉 계명이 다 지켜지게 되고, 나머지 아홉 계명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첫째 계명이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이 계명이 이루어지면 열 가지 계명

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열 가지 계명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고 하면 라켓을 들고 공을 치는 방법이 대충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라운드 스트로크, 발리, 로브 등의 여덟 가지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들어가면 테니스 코트에서의 몸동작이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계명이 지켜지면 나머지 아홉 계명이 내 입과 손과 발과 마음에 붙어버립니다. 테니스 코트에 들어갈 때에 여덟 가지 스트로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익히고 들어가는 것과, 아무런 스트로크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유와 부자유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 삶이라는 테니스코트에서 우리 삶의 시간들을 쳐낼 수 있는, 한 가지 스트로크를 익힐 수 있다면 십계명은 자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라고 문자를 외우면서 행동한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첫째 계명 하나를 잘 지키면 나머지 아홉 계명의 문자를 잊어버려도 다 지켜지는 것이고, 그냥 말하고 손대고 걷고 행동하는데 다 십계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십계명 안에 들어 있어서 밖으로 삐져나가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계획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십계명이 기가 막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첫째 계명이 줄줄이 알사탕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열 가지를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데 한 가지를 지키면 다 지켜지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신들이 의지처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이 진정으로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사랑이시다, 불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심판자이시다."라는 형용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찬양하라고 합니다.
단,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서 망각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직신학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만족이시다, 하

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머지 모든 속성은 다 기억하고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시고 유일한 만족이시고 유일한 행복이시라는 속성만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과도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므로 돈이 있으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돈이 의지처가 되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상시 되고, 돈에 대한 소원을 갖고 돈을 손에 넣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으로 나의 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우상은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가족, 재산, 애인, 권력 등의 의지처로 부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나는 다음 단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이 끊어져서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 규정에서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함이 없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의지처가 되는 것들,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의지처면 돈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 쌓인 상태로 안식일이 지켜질 리가 없고, 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쌓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고, 부모를 볼 때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살인까지 하게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다른 신으로서 의지처인 사람이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고, 자녀가 잘 되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녀가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불평불만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자식 주머니에 부적을 넣어주고 우상숭배, 잡신숭배, 미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불안과 불만이 생길 때에 그 이유를 따져봅니다.
불안과 불만은 뭔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내 의지처이고 다른 신입니다. 내게 불만을 가져다주는 상황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자식이 못 돼서 그렇습니까? 애인이 내 말을 뒤틀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곧 나에게 다른 신으로 의지처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과 모든 다른 신들에 대해

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성령님이 반드시 유일한 기쁨이시고, 유일한 만족이시고, 유일한 행복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만나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 장악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우상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으로 기뻐졌는데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와 연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체성이 발휘되지도 않고 망령되게 일컬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 때에 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만의 시간, 하나님과만의 관계만을 그리워하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안식일이 생활화되는 모습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체성을 관철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동원해서 내가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것을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돈, 건강, 자식, 형통, 사업 등이 잘 되는 것이 기도인줄로 알고 기도합니다만, 기도는 죽는 것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부모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계획의 결정체가 부모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기 시작하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부모님이시고,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한 자가 간음할리가 없고, 도둑질 할리도 없고, 거짓말을 할리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모든 계명의 단어조차 모르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만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 믿는 겁니다. 의지처의 '의지'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으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 아홉 계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 첫째 계명을 끝장냄으로 나머지 아홉 계명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 내려올

때에, 마치 세계 랭킹 1위의 테니스 선수가 테스니장에 들어온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첫째 계명이 이루어지면 다 따라붙어서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갈 때마다 마음을 가질 때마다 십계명 안에 있게 되고, 본격적으로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계명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첫째 계명이 지켜짐에 따라서 줄줄이 사탕이 되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